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The APO in the News"

Name of publication: DT (17 November 2014,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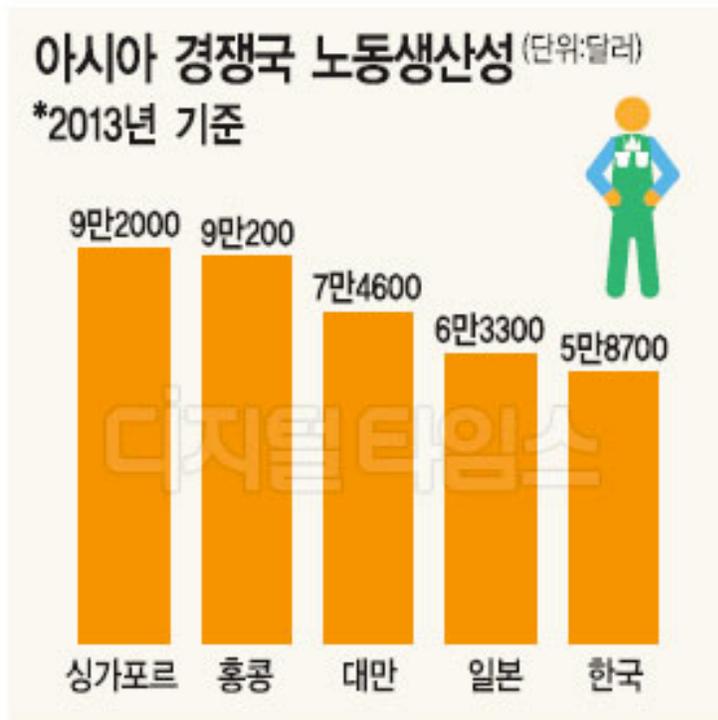
Page: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11702109932742001

"한국, 근로시간은 짧아지고 경쟁국보다 노동생산성 낮아"

경쟁국보다 노동생산성 낮아"

대한상의, 아시아 경쟁국 비교

강희종 기자 mindle@dt.co.kr | 입력: 2014-11-17 11:02



〈자료:아시아생산성기구(APO)〉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시아 경쟁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으면서도 실질 임금 수준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7 일 발표한 '아시아 경쟁국의 근로시간·임금·생산성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우리보다 1 인당 GDP(국내총생산)가 훨씬 높지만 근로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아시아 경쟁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국제데이터(Penn World Table)에 따르면 2011 년 기준 아시아 주요 국가의 근로 시간은 홍콩(2344 시간), 싱가포르(2287 시간), 한국(2193 시간), 대만(2144 시간), 일본(1706 시간) 순으로 길었다. 또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2012 년 기준 자료에서도 싱가포르(2409 시간), 한국(2289 시간), 일본(1727 시간) 순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았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2013 년 기준 1 인당 GDP 는 각각 5 만 5182 달러와 3 만 7955 달러로 한국(2 만 5975 달러)보다 앞서고 있다. 대만은 구매력 기준 소득이 4 만 1539 달러로 한국(3 만 3791 달러)보다 높지만 근로 시간은 비슷했다. 지난 30 여년간 근로시간 감소 추세 역시 우리나라가 아시아 경쟁국보다 가팔랐다. 한국은 1980~2011 년 사이 근로시간이 연평균 18.4% 감소해 일본(19.6%)에 이어 가장 많이 줄었다. 같은 기간 중 대만은 16.9% 감소했고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3.6%와 0.6% 감소에 그쳤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 근로시간을 당연히 단축해야 한다고 논의됐지만 우리나라와 경제발전 경험이나 문화가 비슷한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반드시 장시간 근로 국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아시아의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노동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시아생산성기구(APO)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5 만 8700 달러로 싱가포르(9 만 2000 달러), 홍콩(9 만 200 달러), 대만(7 만 4600 달러), 일본(6 만 3300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임금수준은 월 명목임금 기준 2701 달러로 일본(2939 달러), 싱가포르(3404 달러)보다 낮지만 홍콩(1647 달러), 대만(1502 달러)보다 높았다.

대한상의가 이 같은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최근 정부 여당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노동계의 반발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현행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6 단계로 나눠 시행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휴일 수당을 삭제한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해 생산성과 임금 등에서 경쟁력이 낮고 근로시간도 길지 않은 상황임에도 생산성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채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법안마저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의 수준은 각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